

# 科學者의 社會的 責任

- 특히 生命工學의 實用化問題에 대하여

朴 益 洙

(韓國放射性同位元素協會 회장)

「試驗管아기」가 계속 탄생하려 하고 있다. 작년 10월 12일 서울대학병원에서 국내 첫 시험관아기(남녀 쌍둥이)가 태어난 이래, 다른 병원에서도 현재 임신에 성공하고 있는 시험관 아기가 9명에 이른다고 전한다. 외국에서의 수십만 명에 비하면 우리는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참으로 아기 못낳는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의사에게는 큰 자랑이자 보람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 사회나 爲政者는 이것에 대해 과연 박수만 치고 놀랍게 바라만 보고있어야 옳은 것일까.

오늘날 모든 精子나 卵子是 냉동저장 할 수

있어, 외국에서는 이미 정자·난자은행이 성업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에 있어서는 이것은 큰 랑보로 애용되고 있다.

더욱 이러한 은행은 부부의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으로도 필요하지만 소망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도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가령 훌륭한 藝術家의 자식을 갖고 싶으면 정자·난자은행에 가서 이것을 선별구입하여 시험관아기로 소원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선호에 따라 자식을 가진다면 그러한 사회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선택에는 配偶者간은 물론 非配偶者간 혹은 배우자의 한 사람과 비배우자간 등 수정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또 母胎는 代母를 이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親子關係를 상상할 수 있고 이 때에는 「친자관계의 설정」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친족상속에 관한 民法에 있어서는 『자연적인 「性」결합에 의해 胞胎한 子』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배우자와의 시험관아기는 새로운 법률적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경우에 따라서는 悲運의 탄생일 수 있다. 이것은 진정한 어버이를 그리는 血情에 대한 연민 그리고 고독감에서 오는 심리적 갈등으로 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불안요인을 만들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한편 인공수정이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관아기」의 성공은 백퍼센트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인간생명의 살상·폐기·유기 등에 대한 醫師의 법률적 책임 한계가 문제되어야 하며 또한 의사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사회적·윤리적 문제도 있게 된다.

그러나 인공수정의 조작과정에서 야기된 실수로 畸型兒가 태어났다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져야 하며 사회는 또 그러한 기



◇ 필 자

형아에 대한 판단과 수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다.

근래에 妊娠 중에 胎兒의 「性」을 식별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개발되어 「남자의 선호성」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매우 인기있는 업종으로 성업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유전공학적 방법은 이에 대한 완전무결한 기법이 될것이나 만일 이러한 기술이 남용된다면 남녀의 밸런스가 깨뜨려져 기형적인 사회가 될 것은 뻔한 일이다.

특히 遺傳子에 대한 「사입」·「삭제」·「복사」 등의 유전공학적 기술을 사용하면 사람의 용모, 품성, 소질 등을 인공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현재 이러한 방법은 주로 농작물 및 동물의 종자개발이나 새로운 종자개발에 이용하거나 신제품개발에 이용하고 있고 동시에 산림피해를 막기 위한 인공 천적을 만드는 연구에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계에 대한 이러한 인공생물의 방출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커다란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다.

또한 유전공학적 방법을 인간에 적용하면 美人도, 天才도, 英雄도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모든 여자를 미인으로 만들면 미인의 매력이 없어질 것이고, 모든 남자를 영웅으로 만들면 따르는 사람이 없어 항상 싸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사회의 비극이

자 희극이라 할 수 있다.

요즘에 장기이식이나 인공장기가 발달하여 널리 일반에 이용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이 인간을 자동차보링 하듯이 병든장기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그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인구증가로 인한 거주 및 식량문제, 취업문제, 양노의 복지문제 등 여러가지 심각한 사회적·정책적 문제가 야기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재 이식수술에 있어서 「죽음의 時期」가 새로운 법률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환자의 생전에 연고자로부터 이식수술 허가를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가 죽은 후에도 취소할 수 없는 승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죽음을 기다리는 이식수술은 또 어떠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眞理를 위한 眞理」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 연구결과가 어떻게 이용되건 과학자를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人間을 위한 眞理」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도 그 연구결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교육에 있어서 특히 휴머니티교육이 요구되고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작년 노벨平和賞을 國際醫師機構 (IPPNW)에 준 것도 思想을 초월하고 뭉친 의학전문가들이 不治의 병으로 규정한 核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反核운동을 일으킨 그 사회적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원자폭탄의 비밀을 안고 나치즘 독일을 탈출한 아인슈타인과 같이, 그리고 호전적인 코뮤니즘에 대해 학문적 충성을 거부한 소련의 반체제 核물리학자인 사하로프와 같이 우리의 과학자 특히 생명공학자들도 그 윤리적·법률적 문제에 앞서 강한 인간적·사회적 책임을 가진 과학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